

비즈니스의 교역(敎役)

모든 일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라

수도회들이 창설한 가톨릭 기관들은 항상 고유한 성격을 지녀왔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들에 근거하여 1983년에 공포된 현행 『교회법전(Code of Canon Law)』은 이 같은 특성을 명료하게 전달해 준다. 무엇보다 먼저, 봉헌생활회, 즉 교회의 공식 명칭으로는 보통 수도회라고 불리는 단체의 회원들은 “하느님 나라에 봉사함으로써 애덕의 완성을 추구하기 위해 (...) 하느님께 전적으로 봉헌되는” 삶에 헌신하며, “그들은 교회와 그의 신비에 특별한 양식으로 결합”된다(교회법전 제573조). 수도회 안에서 그리고 수도회를 위하여 특수한 임무를 맡은 장상들은 그들의 교역(敎役)을 “봉사의 정신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모든 회원들은 그들이 일하는 모든 분야에서 봉헌 생활을 증거하는 주요 사도적 의무를 수행한다. 이 모든 것은 수도회의 회원들이 자신들의 일을 “왜”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강조한다. “사도적 사업에 헌신하는 회들에서는 사도적 활동이 그들의 본성에 속한다. 그러므로 회원들의 생활 전체가 사도적 정신으로 흠뻑 젖어야 하고 사도적 활동 전체는 수도 정신으로 생기 차 있어야 한다. 사도적 활동은 언제나 하느님과의 밀접한 일치에서 우러나오고 이 일치를 견고케 하며 증진시켜야 한다.”

이 일은 또한 수도회의 회원이 아닌 다른 많은 사람들도 가톨릭 기관들의 행정 분야에서 함께 수행해 나가도록 요청받고 있는 유산이다. 이를 통하여 행정은 단순히 가톨릭적 특성을 지닌 기관을 유지해 나가는 일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 이상의 일을 하게 된다. 그것은 곧 교회와 하느님의 백성을 위한 교역이다.

『교회법전』은 무엇보다 먼저 성사(聖事)와 관련된 직무에 대해 언급하며 이 성사들과 준 성사(제1168조)를 집전하는 교역자들에 대해 말한다. 나아가 교회법전은 제3권(“교회의 교도 임무”) 제1장 “하느님 말씀의 교역”에서 모든 신자 회원들이 각자의 고유한 조건에 따라 복음을 선포하는 다양한 역할에 대해서 설명한다. 신자의 권리와 의무를 밝히는 — 특히 “하느님의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는 일과 관련하여 — 교회법전의 몇몇 조항들은 신자 회원들의 이러한 역할을 더욱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Sr. 켈리 코너스, PM, J.C.L.
캐나다 온타리오 세인트폴 대학교
교회법 박사과정

교역(Ministry)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교역을 특히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수행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 육적인 자선 행위가 바로 이 증거의 수단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각자가 수행해야 할 교역을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병든 이들의 상처를 치료하며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

는 일 등과 같은 구체적인 행위로 이해하기가 쉽다. 그러면 인사팀, 기획팀, 재무팀과 같은 행정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대체 이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일까? 그들이 가톨릭계 병원이나 기타 시설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가톨릭 기관이 다른 기관들과 구별되는 요소는 우리가 “왜” 그리고 “어떻게” 이 일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가톨릭 기관들은 이념과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명을 실현하는 일에 함께 참여한다고 해서 그들 모두가 반드시 가톨릭교회의 구성원인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단지 가톨릭 기관과 일터에서 일하며 봉사하고자 함으로써 같은 사명에 참여하는 것일 뿐이다. 교회법전 제225조 2항은 우리 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혀준다.

“각자는 자기의 고유한 조건에 따라 현세 사물의 질서를 복음 정신으로 적시고 완성시켜 특히 현세 사물을 처리하거나 세속 임무를 집행하는 중에 그리스도를 증거할 특별한 의무도 있다.”

비즈니스

가톨릭 기관들을 가톨릭적 정체성과 카리스마로 정의하고 고무하며 무장하게 하는 데에는 오랜 세월과 수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가톨릭 기관들에는 다른 공공기관들과 구분되는 고유한 특성이 있으며, 둘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굳이 하려고 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보건의료가 또한 하나의 업무, 즉 비즈니스임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현대 미국 사회에서 가장 궁핍한 이들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는 일은 유망한 비즈니스로서 계속해서 번창해 나가야 할 일이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이념-사명과 거리를 두게 되면 그 일은 날마다 그만큼 후퇴하게 된다.

우리는 전문가들이며, 또 전문가들을 고용한다. 그 외에 달리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대다수 사람들에게 최고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고용하는 유일한 공식 “교역자들”은 원목부서에만 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교회의 사명에 참여하여 병자를 위한 돌봄의 사도적 활동을 증진시키려는(제216조) 기관의 노력이 관련된 모

든 이들로 하여금 교회의 이름으로 맡겨진 사명을 수행하도록 이끌어준다고 믿는다(제116조와 118조).

교역과 비즈니스의 결합

비록 우리가 시설 인력이나 인사팀의 인력을 직접 고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실 가톨릭 기관에서 성실히 자기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자신의 일을 교회 사명의 일부로 이해해주기를 기대해왔다. 바로 이것이 많은 우리 기관들의 창립 이념의 핵심이다.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 고유한 이념문을 제시하는 일은 각 기관의 가톨릭적 정체성을 진작시키는 근본적인 방법이다. 모든 사람이 이념 - 고유한 이념과 교회의 사명 - 에 헌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모든 이들이 자신의 참여와 공로를 과연 ‘사명’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교역과 보건의료 비즈니스라는 이 두 측면을 하나로 묶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교회법전 제225조 2항은 이 둘을 조화롭게 결합시킨다면,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이 현세의 일들, 날마다 이루어지는 보건의료 업무를 복음의 정신으로 듬뿍 적셔 그리스도를 증거 하게 되리라고 언명한다. 복음을 살고 그리스도를 증거 하는 일은 분명히 교역 활동이며, 이 활동은 행정 업무에서도 구체적으로 자리한다. 아마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행정 ‘교역’이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우리 눈앞에 제시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복음 정신으로 물 들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증거해 왔으며, 바로 그것이 수도회 회원들과 그들의 모범을 따랐던 이들의 일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는 고유한 특성이다.

중요한 것은 수익도 아니요, 비즈니스의 견지에서 말하는 성공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의 선포이며, 복음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선포된다. 우리 모두는 복음의 교역에 그리고 보건의료의 교역에 참여하고 있으며, 바로 거기에 가톨릭 기관의 탁월한 공로가 있다.

출처 : Sr. Kelly Connors, “The Ministry of Business: Do Everything for the Glory of God”, Health Progress(September–October 2009), pp. 14–15.

번역 : 가톨릭중앙의료원 임상사목연구소